취객토끼

-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객. 이마에 두른 넥타이를 보아 회사원인 것 같다. 회식에서 상사의 강권에 의해 과음을 하고 나왔는데 신발 한 짝은 어디에 떨구고 왔는지 모르겠다. 입을 틀어막아도 터져 나오는 울분과 토사물을 막을 수 없는 그가 안쓰럽지만 그래도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.

성추행범 토끼

- 기분 나쁜 손짓과 수상한 단추로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새… 아니 아니 토끼. 정말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은 또 걱정이 되는지 마스크와 모자는 끼고 돌아 댕긴다. 신나게 뚜까 패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자!

잡상토끼

- 금산 깻잎 박스에 온갖 잡동사니를 넣고 지하철은 누빈다. 물건을 팔기 위해선 시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이기에 한 손에는 효자 상품 전기 파리채를 들고 다닌다. 원샷 원킬인 전기채의 이름은 승리가 약속 된 검에서 따온 “엑스칼리버”다!

전도몬 토끼

- 그대는 대우주왕토끼교를 들어봤는가? 죽음 뒤에는 오로지 대우주왕토끼가 있을 뿐이다. 이 토끼는 대우주왕토끼를 믿으면 눈을 가리고 걸어도 대우주왕토끼가 지켜준다고 믿기에 눈을 가리고 앞으로 나아간다. 과연 사람들이 피하는 건지 대우주왕토끼가 지켜주는 건지….

노신사 토끼

- 그는 힙스터였고 아직도 힙스터다. 그는 핑크색 정장을 훌륭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멋진 노신사이기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 토끼들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다. 항상 들고 다니는 시나몬맛 당근 쿠키는 그의 페이보릿 간식이다.

공익요원 토끼

- 지하철의 질서를 지키는 검은 옷의 토끼. 나쁜 토끼와 불의를 보면 화를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그는 모든 토끼는 다시 착해질 수 있다고 믿는 편이기에 한창 뚜까 패다가도 변하는 것이 보이면 매를 거두는 토끼다. 물론 그에 의해 쫓겨나기 전에 변한다면 말이지…

외국토끼

- 전세계를 여행하는 자유로운 토끼.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준 나무로 만든 부엉이 열쇠고리는 그에게 있어서는 행운의 상징이자 소중한 보물이다. 지금은 서울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 곳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에게는 너무 어렵다!

임산부 토끼

- 귀여운 아기 토깽이를 품고 다니는 임산부 토끼. 곧 태어날 아깽이를 위해 예쁜 인형도 만들었다.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가는 날인데 평소에는 남편이 차로 함께 가주지만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혼자 가는 중이다. 근데 이런, 인형을 잃어버린 것 같다!

버나드

- 나는 사랑을 할거야! 라고 하며 사랑을 꿈꾸는 낭만적인 토끼.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을 지닌 그는 자신과 똑 닮은 마음씨를 가진 토끼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다고, 그리고 언젠간 그 토끼를 만나고 서로를 알아볼 것이라고 믿는다. 어쩌먼 오늘, 이 지하철에서?

레이첼

- 난 이제 지쳤어.. 라고 하며 사랑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토끼. 천성이 따뜻하고 상냥한 토끼인 그녀는 지난 연애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다. 모든 토끼들이 이렇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녀, 과연?

유식한 시민 토끼

- 그는 유식하다. 유식하고 유식한 시민인 그는 다른 토끼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다. 그리고 그가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많고 다양한 토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하철이다.

아재토끼

- 아재 개그에 일가견이 있는 아재 토끼. 늘어난 노란색 난닝구와 사각빤스가 가장 편한 그는 아재개그를 전파하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다. 그리고 그는 자신에 개그에 너무 웃은 나머지 배꼽이 빠졌다.

세상에 무서운 토끼

- 세상이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하는 소심한 토끼. 요즘은 흉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. 다들 왜 그렇게 못 미워해서 안달일까?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? 세상의 모든 것에 슬퍼한 그이기에 그만 회색으로 변했다.

밖으로 나오고 싶은 토끼

- 얼마나 살았다고 그녀의 인생에 벌써 이렇게 많은 굴곡들이 생긴 것일까? 이미 양 극단을 경험해본 그녀는 중간 지점을 찾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밖으로 나선다.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곳은 많은 토끼들이 있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지하철.

대학원생 토끼

- 그녀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? 두꺼운 안경과 더 두꺼운 시험 답안지들. 매일 매일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좋고 함께 학문에 정진하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기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끌어간다!